

이덕일의 '역사의 창'



촛불이 가야 할 길

촛불 정국이 말해 주는 것은 한국식 대의 민주주의의 파산이다. 그간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는커녕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분노가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이다. 한국식 대의 민주주의의 파산은 한국식 정당정치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시대적 요구와 역주행하면서 달렸던 한국 현대사의 필연적 귀결일지도 모른다.

1945년 8·15 해방 후 한국의 정치는 어 떤데야 했을까?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히게 처단한 토대 위에서 좌파 레지스탕스들이 사회당을 건설하고 우파 레지스탕스들이 보수당을 건설해서 새로운 프랑스 건설에 나섰던 것 같은 정치가 한국에도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정산되어야 할 친일 매국세력이 미 군정의 비호로 다시 정권을 잡아 좌파는 물론 우파 독립운동가들까지 정산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의 제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런 역주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백범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한독

당)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면서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총선에서 총 200석 중 이승만이 이끄는 독립촉성중앙회는 55석(166만여 표, 24.43%) 획득에 그쳤다. 미 군정 내내 여당이었던 친일 지지들의 정당인 한민당은 29석(82만여 표, 12.1%)에 불과해 두 당을 합쳐도 36.53%였다. 승자는 85명(274만5000여 표, 40.3%)을 당선시킨 무소속이었다. 한독당이 참여했다면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민당은 무소속을 포섭해서 80여 석으로 늘린 후 이승만을 대통령, 김성수를 총리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구성했으나 이승만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관철시킨 후 약속을 깨고 김성수 대신 이윤영을 총리로 지명했고 한민당이 부결시키자 다시 이범석을 지명했다. 한민당이 야당의 길을 걷은 것은 이승만에 의해 거듭 팽(烹)당했기 때문이지 자의는 아니었다.

이후 1950년 5월 30일의 제2대 총선거까지 이승만 정권은 국회 프락치사건, 반민특위 해산, 백범 김구 암살 등 실정과

만행을 거듭했고, 그 결과는 제2대 총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승만이 이끄는 집권 여당인 독립촉성중앙회는 210석 중 14석(6.8%)으로 몰락했다. 민중들은 보수 야당에도 준엄한 매를 들었다. 한민당 후신인 민주국민당은 24석(9.8%)에 불과했고, 윤치영의 대한민국민당도 24석(9.7%)에 그쳤다.

승자는 126석(62.9%)으로 늘어난 무소속이었다. 6.8%를 득표한 이승만 정권은 지금의 박근혜 정권처럼 완전히 파산 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을 살린 것은 총선 한 달 후 김일성이 지행한 6·25 남침이었다. 남한 내 극우파와 북한 내 극좌파가 겹으로는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2002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북한 김정일 위 원장에게 '주체 91년'이라고 표기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속으로는 긴밀하게 협력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을 비롯한 온갖 선거부정과 반공을 빙자한 공포 통치로 10년 이상을 더 집권하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쫓겨났다. 이때까지 선

거는 요식행위였다.

지금은 다른가? 분노한 촛불 민심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본다. 첫째 일제 강점기가 좋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따위의 식민사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정치·학문·예술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복유립식 인권 국가로 가야 한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은 북한과 비슷한 사회로 전락했다.

셋째 공정한 분배의 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상위 몇%가 독점하는 현 체제는 근본적으로 갈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을 바꾸는 저차원의 변화로 이룩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선거 날 하루만 유권자가 주인인 파산 난 대의 민주주의를 유권자가 늘 주인인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 이것이 촛불 민심이 배신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고혈압과 당뇨



김 동 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다.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이 발병했을 때 혈압은 보통 정상으로 나타나며, 발병 초기의 고혈압 빈도는 일반인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이 상태가 5~10년간 유지되다 당뇨병성 신증(고혈당에 의해 신장의 세포와 혈관이 손상돼 나타나는 질환)이 나타나면 빈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때, 이미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신기능 장애보다 먼저 나타나며 만약 신증이 동반되면 고혈압 빈도는 더욱 증가한다. 보통 당뇨병 환자 중 20~3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고혈압 환자도 정상인에 비해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2.5배 높다. 고혈압의 합병증은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인체의 장기에 이상이 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심장과 뇌, 신장, 눈 등에 문제가 생긴다.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만과 운동부족인데, 이 습관은 혈당을 상승시켜 당뇨병을 일으키게 된다.

당뇨병 역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등 혈관에

병이 들기 시작한다. 당뇨병 합병증의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혈관이 풍부한 조직들에 생기는 병증이라는 것이며 대표적인 것이 눈, 콩팥, 신경 그리고 신장혈관, 뇌혈관, 다리혈관과 같은 말초혈관이다.

각각으로도 위험한 이 두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산 몸 안의 혈관은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들은 심장 주변의 큰 혈관부터 시작해 발과 손, 눈 등의 미세혈관까지 파괴하며 각종 합병증을 불러오게 된다. 신장이 망가지고 발을 자르거나 실명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근경색 등의 혈관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다. 이들이 함께라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신장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증을 예방해야 할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이 있다면 각종 혈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만 낮추도 당뇨병 전체 합병증이 12% 감소하고, 심근경색의 발병이 11% 감소하며, 미세혈관 합병증은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도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완기 혈압이 80mmHg 미만을 목표로 치료해야 하며 그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에게 고혈압의 치료는 먼저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제한적인 염분섭취, 적정 체중 유지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44회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 당뇨병의 가장 큰 위험인 합병증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했다. 당뇨병은 합병증에 따라 치료법도 다른데 망막병증, 족부궤양 등 미세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합병증의 경우에는 혈당수치만 잘 조절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등 보다 치명적인 혈관 합병증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만으로는 예방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혈소판 기능장애 등 혈관 장애를 일으키는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일 가능성은 당뇨병이 아닌 경우에 비해 최고 2배 정도 높으므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 외에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혈당은 식전dL당 120~140mg이하, 식후dL당 180~200mg이하다. 혈압은 120/80mmHg 미만, 콜레스테롤은 dL당 200mg이하여야 한다.

기 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대학



박 광 원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오늘날 도시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와 경쟁의 결과물에 따라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들이 직접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이미 스페인 빌바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일본 도쿄 등 많은 도시들이 도시재생에 주목,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과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돼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의 도시에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도시재생에 선제적으로 접근했다. 도시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의 이해를 넓히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시재생대학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도시재생대학 강좌는 연 2회, 최대 8주간 진행돼 지금까지 108명의 도시재생 활동가를 양성하였다. 이들

은 광주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활동가'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하는 유능한 교수진을 모시고 이론 강의와 실습, 그리고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 지역 대학교 도시재생분야 전공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수강생들이 구상한 아이디어가 구체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커리큘럼은 광주도시재생대학의 특징이다. 여기에는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깃들여 있다.

최근 수료한 3기 수강생들은 그 성과와 결실로 도시재생대학이 추구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강생들은 5개 팀으로 나뉘어 각 지역별로 위치를 선정,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보는 '도시재생 실습과정'을 진행, 눈길 끄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북구 수창초등학교 일대를 무대로 한 '기억을 노래하는 북동마을'과 남구 월산동 달전머리를 다룬 '월산동, 느리게 가는 달뫼마을', '인쇄가 문화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동구 인쇄문화의 거리를 다룬 3개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앞으로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성과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기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활동가 108명의 사회활동 영역을 보면 공무원 14명, 관련업체 종사자 21명, 교수 5명, 건축사 7명, 일반시민 61명이다. 이 중 일반시민 참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횡수를 거듭할수록 일반시민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추세는 도시재생의 방향이 시민 참여, 사회적 합의 등을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재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광주도시공사는 도시재생대학 활성화에 더 노력해 도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재생활동가'를 계속 배출함으로써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社 說

새누리 분당 세력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5명이 오는 27일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들이 탈당을 실현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分黨)이 이뤄지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총선 공천과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을 놓고는 어떻게 그동안 같은 당에 있었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내분을 겪었다. 이번에 새누리당을 떠나게 된 정두언·남경필·원희룡·정병국 등 일부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소장 개혁파로 일찍이 탈당이 예견되기도 했다.

이로써 기존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체제가 '비박계 신당'이 가세한 4당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사를 보면, 1987년 개헌 이후 4당 체제의 본격 출범은 13대 총선을 통해 이뤄졌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의 결과가 나와 4개의 교섭단체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의 전격적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4당 체제는 막을 내리고 양당체제로 재편됐다. 또 민자당·민주당·통일국민당의 3당 체제로 시작된 14대 국회에서는 1995년 정계는퇴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민주당 소속 의원 60여 명이 신당으로적을 옮기면서 1년간 4당 체제(민자당·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가 유지되기도 했다.

다당 구조는 다양한 국민 요구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그동안 만연한 계파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은 다당 구조하에서 국민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누리당을 나오게 되는 탈당 세력은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독감 기승…손 씻기 등 위생수칙 철저히

초·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환자가 급속히 확산돼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에서만 3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청은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에 조기방학 검토를 지시했다.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이날 현재까지 160개 초·중·고교의 학생 1218명이 독감에 감염돼 등교하지 못했다. 등교 중지(학교장 인정 결석)를 내린 학교는 77개 초등학교 학생 537명, 중학교 52개교 368명, 고교 30개교 312명 등이다. 전남도 역시 이날 현재 216개교(초등 112·중등 57·고등 46·특수 1) 학생 2788명(초등 1530명·중등 939명·고등 317명)이 독감 인플루엔자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독감 전염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 학교에선 이번 주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겨울방학을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 하겠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처럼 방학을 할 수 없는 요양시설의 경우 독감 환자가 발생하면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 그대로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시설도 마찬가지다.

방역 당국은 독감 발생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생 상태가 취약한 집단시설들을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 역시 평상시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토요일 오후, 도로는 차량으로 꽉 막혔다. 차는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없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조바심이 났다. 잠시 고개를 틀었을 때, 옆에 선 버스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소녀들의 그림이 보였다. 입가에 슬피 미소가 떠오르고, 마음도 차분해졌다. '금호 45'번 버스에 '그러진' 소녀들은 성혜림 작가의 작품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지나쳤는가'였다.

매칠 후 출근길, 이번엔 '좌석 02'번 버스에서 고근호 작가의 '영웅-즐거운 상상'을

아트 버스

와 함께 탔었다. 거리를 걷다 만난 '토끼'도 인상 깊다. '송암 72'번 버스에 랩핑된 김한나 작가의 '토끼도 탐니다'. 지인이 찍어 준 사진을 보니 버스 내부에도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도 토끼와 함께 그 버스에 타고 싶었다. 모두 광주시가 운영 중인 '아트 버스' 모습이다. 일본에도 도시의 명물이 된 교통수단이 많다. 도쿄 니가타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에 도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바람의 길썬 따라 건너, 고양야 버스를 타거나. 버스에 하야오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 캐릭터가

랩핑돼 있어 인기 만점이다. 기타큐슈는 '하록 선장'으로 유명한 마스모토 레이지의 고향이다. 가차역에는 하록선장 등 대표 캐릭터 동상이 서 있고 지상 전철에선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은하철도 999'의 철이와 메텔을 만날 수 있다. 당연히 여행자들의 필수 촬영 코스다.

광주의 아트 버스는 지난해 말 지역 작가 8명이 처음 참여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한 끝에 모두 30명의 화가가 개성이 담긴 작품을 완성했다. 현재 운행 중인 998대 중 아트 버스는 딱 30대나, 30점의 '울적'은 작품이 도시

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버스 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일부 작품은 난해하고 너무 어둡다는 등 민원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차량은 오 폭 막힌 도로에서 운전할 때, 삭막한 도로를 걸을 때,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대중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 만나는 아트 버스는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작은 즐거움에 틀림없다. 더불어 광주를 알리는 근사한 홍보판이기도 하다. 가끔 버스를 타는데 '토끼'를 만나는 행운이 꼭 걸리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